

보도시점 : 2024. 12. 27.(금) 11:00 이후(12. 27.(금) 석간) / 배포 : 2024. 12. 26.(목)

창녕 우포늪, 밀양 얼음골 더 가까워진다, 창녕 - 밀양 고속도로 개통

- 28일 오전 10시 28.5km 구간 개통... 국가도로망 동서2축 78% 건설 달성

- 함양-울산 고속도로(제14호선)의 창녕-밀양 구간이 12월 28일(토) 오전 10시 개통한다.
 - 이번 창녕-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,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
- 창녕-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연장 28.5km로, 4차로 신설 구간이다.
 - 사업비는 총 1조 6,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,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,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.5km로 줄어든다.
 - 그간,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,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 - 또한 현재 운영 중인인 밀양-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 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,
 -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,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,03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.
-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, 동서 간선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.

○ 이번 개통으로 동서 방향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함양-울산 고속도로의 동서축 연결이 강화되고, 미개통 구간인 함양-창녕 구간(70.9km)도 '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12월 27일 오후 2시 밀양영남루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,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,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.

○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.

□ 개통식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“창녕-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지역의 이동성 향상 뿐만 아니라,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현재 공사 중인 함양~창녕 구간도 '26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여 무안-광주-남원-거창-밀양-울산을 잇는 국가간선 동서2축 횡단 노선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수	(044-201-3889)
<협조>	한국도로공사 건설처	책임자	처 장	박중규	(054-811-3001)
		담당자	팀 장	이정희	(054-811-3070)

□ 사업개요

- (사업구간) 경남 창녕군 장마면 유리 ~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
- (사업규모) 연장 28.5km, 4차로 신설
- (총사업비) 1조 6,832억원
- (주요시설) 분기점 1개소, 나들목 2개소, 휴게소 1개소

□ 추진경위

- 2003. 6 :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(B/C 1.06)
- 2005. 12 : 타당성조사 완료(B/C 1.18)
- 2009. 12 : 기본설계 완료
- 2013. 12 : 실시설계 완료
- 2016. 10 : 공사착공
- 2024. 12 : 공사 준공 (개통 : '24. 12. 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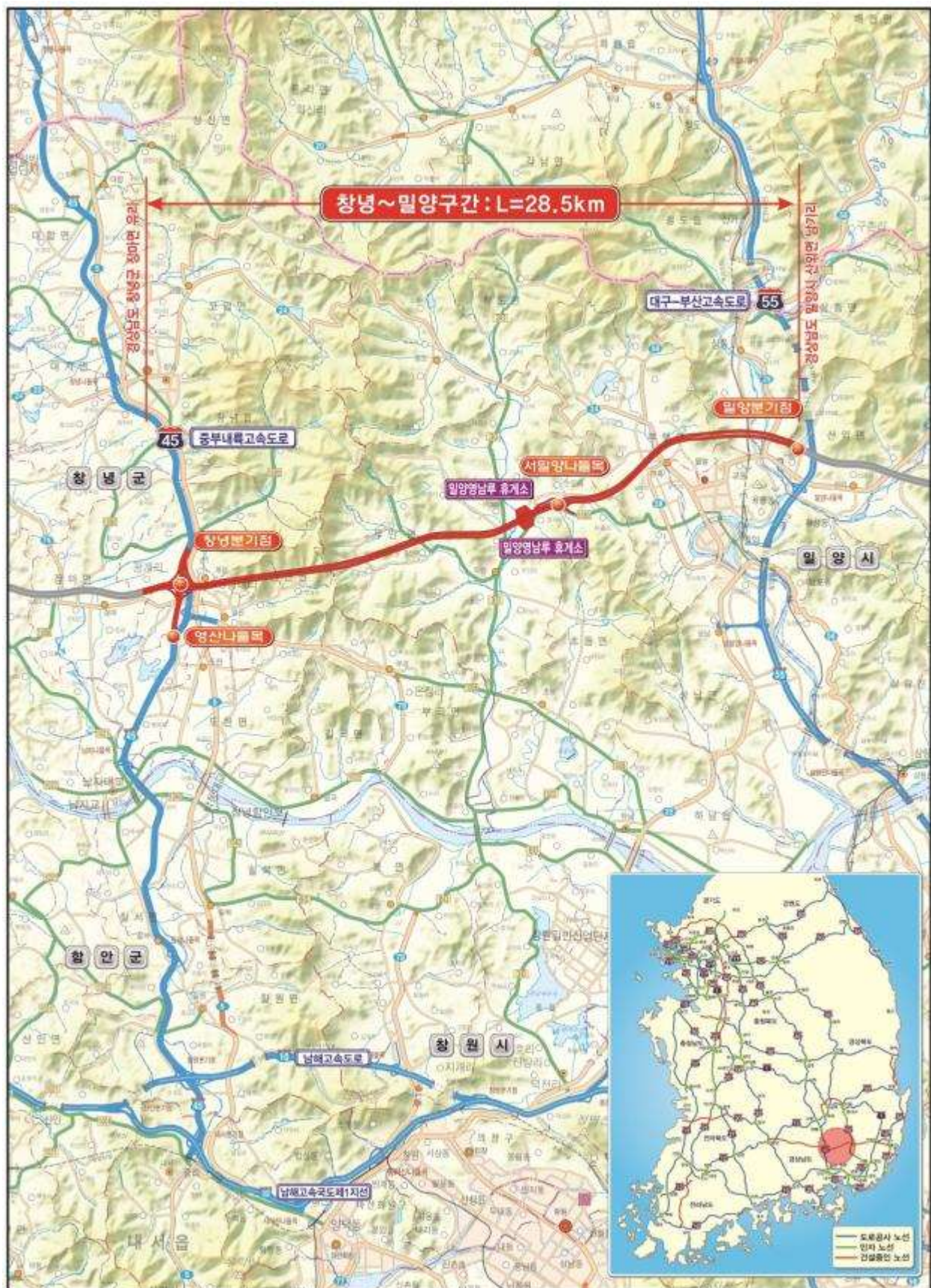
□ 개통의미

- 경남지역 동서방향 고속도로 구축으로 관광자원 연계, 생활권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개발 촉진

□ 기대효과

- 사회적 편익 4,030억원/년 절감, 주행거리 13.5km↓, 주행시간 46분↓
※ (거리) 42.0km → 28.5km (△32%) / (통행시간) 63분 → 17분 (△73%)

창녕-밀양 고속도로 위치도



참고3

함양-울산 고속도로 위치도

